

#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7월 20일 · 제366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 Contents

###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비용절감을 위해 브레이크벌크 선사 간 협력 가속화
2. 중국 항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제기
3. 파나마 운하 확장 여파로 파나마스 선박 처리곤란
4.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Weihai) 항만, 복합운송 서비스 센터 개발

### | 물류시장동향 |

1. Damco, 'Hub-in-Transit' 지연전략 프로그램 확대
2. Palfinger, TTS 인수합병 제안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비용절감을 위해 브레이크 벌크선사 간 협력 가속화

- 브레이크 벌크운송사들은 비용 절감, 운송범위확대 및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 및 협력을 시작하고 있음
  - 물동량, 운송요율, 선박수익 등이 정체에 빠짐에 따라 벌크선사 간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압력은 2015년 중반부터 증가되어 왔음
  - 실제 컨테이너선사의 경우와 같이 거대규모의 기업 인수합병이 벌크운송분야에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점차 선사 간 상호 협력 및 통합이 이뤄지기 시작함
- 독일 함부르크 기반의 Rickmers-Linie은 덴마크 운송그룹의 Dannebrog Rederi의 다목적 부정기 화물선사인 Nordana Project & Chartering(NPC)를 인수하여 시장에 충격을 안겨줌
  - 금번 인수로 인해 Rickmers는 다목적 프로젝트 운송사 중 선박량 기준 11위에서 8위로 올라서게 되었다고 Hamburg의 선박중개사인 Toepfer Transport가 밝힘
  - Rickmers의 시장점유율은 자사소유 및 장기임대를 합쳐 선박량 기준으로 2.8% 증가하였음
  - Rickmers-Linie은 NPC이름으로 계속 운영될 다목적 운송부문을 통해 벌크 및 중량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크고 다양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NYK Bulk & Projects는 코펜하겐 기반의 다목적 프로젝트 운송사인 Licvem Shipping & Trading과 함께 합작투자 형태로 유럽-아프리카 항로에서 3~8척의 배를 운영할 것임
  - NYK는 최근 몇 년 간 유럽-서아프리카 간 운송시장 공략을 위해 동 항로 전용 선박 2~3척을 투입해 왔으며, 금번 Licvem과의 협력으로 해당항로에서 보다 많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AAL과 함부르크의 Peter Döhle 또한 부정기 다목적 운송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양사는 아시아-유럽 항로에 상호 공동예약 및 운영프로시저를 도입하였고, 해당항로에 6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운항하고 있음
  - AAL 부정기운송사업부 general manager인 Marc Willim씨는 협력을 통해 양사 모두의 물동량이 증가했다고 밝힘
  - 또한 양사는 아시아-미국 걸프만 및 지중해-북대서양 항로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자료 : www.joc.com, 2016.07.17.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 중국 항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제기

-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을 내던 중국 항만들이 시설과잉 심화로 적자시대 진입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됨
  - 이에 대해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예측과학센터 Wang Shouyang씨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항만 중복건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함
  - 같은 예측과학센터 Xie Gang씨는 정책 입안자들이 항만 중복건설 및 공급과잉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센터가 수행한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예측에서 다롄항, 홍콩항은 올해 물동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됨
- 향후에도 중국은 세계 제조 및 수출 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며, PTI(Port Technology International)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항만 물동량은 2030년까지 연간 6%의 성장이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글로벌화에 따라 중국 항만의 처리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항만시설은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항만의 공급과잉 현상은 수요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 전세계 항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함
-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으로 항만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터미널 개발비용과 운영비용 또한 증가하여 항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처럼 시설과잉, 수요 불확실성, 비용 상승은 전세계 항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3중고이며, 그동안 중국은 이와 같은 항만분야의 환경변화의 예외지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중국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함

자료 : [www.porttechnology.org](http://www.porttechnology.org), 2016.7.13.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mailto:hisgrace@kmi.re.kr)



## 파나마 운하 확장 여파로 파나막스 선박 처리곤란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최근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이 컨테이너선의 배선 패턴을 개편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파나막스급 선박의 계선 및 폐선이 늘어나고 있음
  - 산업 분석가는 5,300-7,5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과 7,500-10,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기존의 4,000-5,100TEU급 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을 점차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알파라이너의 최신 유휴선박 조사(Survey of idle vessels)에 따르면, 5,300TEU급 이상의 유휴 컨테이너선이 6월 27일 기준으로 9개월 최저치인 51척으로 줄어듦
  - 또한 앞으로 2개월간 몇척의 유휴선박이 추가로 서비스를 재개할 양상을 보이는 등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의 영향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음



파나마 운하 전경

자료 : www.joc.com



MOL Benefactor 파나마 운하 입항 전경

자료 : www.pilotonline.com

- 최소 23척의 파나막스선이 동남아시아 계선지인 Labuan, Davao, Batum에 정박해 있으며 냉혹한 전망 속에 파나막스선의 계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올해 이미 폐선한 22척의 4,000-4,800TEU급 컨테이너선 중에는 선령 14년의 젊은 선박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현대상선은 일부 4,600-4,700TEU급 컨테이너선을 새로운 극동-중동간 서비스에 배치하는 등 기존의 파나막스선 활용방안을 찾고 있음
  - 하지만 알파라이너는 시장 세분화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파나막스선의 마지막 서비스가 이번 여름에 종료되면 대체되는 파나막스선은 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파나막스선은 1970년대 초 East-West 항로에 컨테이너선이 취항하면서 일반화물선이 대체된 것과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7.12. / www.pilotonline.com, 2016.7.12.

박성화 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Weihai) 항만, 복합운송 서비스 센터 개발

- 웨이하이 항만그룹은 웨이하이 지역에 100만 m<sup>2</sup>의 복합운송 서비스 센터 개발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USD)를 투자할 예정임
  - 건설부 기술담당 Li Chao 부장은 지역 매체에, “이번 복합운송 서비스 센터가 완공되면, 웨이하이 항만에 있는 모든 지점들이 통합되게 되어 모든 컨테이너들이 이곳 웨이하이 복합운송 서비스 센터로 운송될 수 있다” 고 언급하였음
  - 2015년 웨이하이 항만은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한 695,000 TEU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205,000 TEU는 한국과의 물동량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물동량임
- 칭다오 항만도 복합운송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산둥성 주요 항만인 칭다오(Qingdao) 항만도 최근 독일의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 항만과 협정을 맺어, 두 항만 간 복합운송을 증진시키기로 하였음
  - 칭다오 항만에서 해운과 육상 철도 및 도로를 잇는 복합운송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선정한 16개 시범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함
  - 현재 중국 교통운수부에 의해 복합운송 산업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중국 전역에 걸친 복합운송 프로젝트 증진을 위한 통합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임
  - 지난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COSCO 선사의 Gu Zhongdong 차장은,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이 복합운송 사업을 강력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복합운송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여 언급함

웨이하이 항만 전경



자료 : [www.sea-web.com](http://www.sea-web.com)

자료 : [www.sea-web.com](http://www.sea-web.com), 2016.7.15.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mailto:joohye915@kmi.re.kr)





## 물류시장동향

### Damco, 'Hub-in-Transit' 지연전략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 선사 머스크 그룹의 글로벌 포워딩업체인 담코(Damco)사는 자사 물류서비스인 허브-인-트랜짓(Hub-in-Transit)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힘
  - 담코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와 모로코에 신규 허브를 건축함으로써 본 물류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힘
  - 자사 물류서비스인 허브-인-트랜짓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최종 배송지 및 날짜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지연전략(Postponement)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담코사는 고객사중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으나 최종 배송지에 저장 수용력 등이 부족한 고객사, 특히 배송지와 배송날짜에 대해 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고객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담코사의 앤토니 엘윈(Anthony Elwine) 글로벌 화학공업 물류부분 전무는 다양한 산업에 본 서비스가 유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앤토니 엘윈 전무는 허브-인-트랜짓 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하던 화학공업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외에도 철강 및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화학공업산업의 고객사가 누리는 혜택을 비슷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gscintell.com, 2016.7.15.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

### Palfinger<sup>1)</sup>, TTS<sup>2)</sup> 인수합병 제안

- Palfinger Group ASA는 TTS Group ASA에 대한 공식적인 인수 제안을 공표함
  - Palfinger Group의 TTS에 대한 공식 제안은 Oslo 주식 거래소의 승인을 받고 공표됨
  - Palfinger는 TTS의 주식 100%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제안은 최소 90%의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도 포함함
  - 제안에 대한 초기 수락 마감일은 2016년 8월 12일임

1) 1932년 설립된 업체로, 유압 Lifting, Loading, Handling 시스템 부문의 세계 선두 업체 중의 하나임. Truck-mounted knuckle boom Crane 제품의 세계 선두업체이며 전 세계 130여 개국에 5000개 이상의 판매와 서비스 대리점을 운영함. 2015년 기준 종업원 규모 8995명, 매출액 규모 12억3000만 유로임.

2) 해양과 해안관련 업체에 일급의 처리 솔루션과 접근 시스템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노르웨이와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110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TTS 이사회는 거래를 제안하면서 Palfinger Marine의 일원이 되어 고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Palfinger는 유압 Lifting, Loading, Handling 시스템 부문의 세계 선두 업체 중의 하나로 TTS가 향후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산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worldcargonew.com](http://www.worldcargonew.com), 2017.7.18.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